전매광장

10·19, 동백 지다!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장

주말, 음악회를 위해 순천 광양을 연거푸 다녀왔습니다. 여순사건, 14연대반란사건으로도 알려져 온 10·19 여순사건 74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 발맞춰 기획된 특별음악회 '여순 10·19-동백 지다'를 보러 간 것입니다.

음악회에는 핀란드 독립운동과 저항 정신을 담은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디아'를 비롯해 여순 항쟁 희생자의 혼을 위로하는 '진혼'(조승필 곡, 조계수 시), 여순 사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구례 산동의 슬픈 역사를 담은 '산동애가' 등이 연주됐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편곡된 김대성의 교향시 '민주', 박영란의 피아노협주곡 '5월광주'까지 연주되면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아픔을 공유하려는 의도를 잘 표현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희생자 추모 특별음악회

'시월이 오면/ 여수 앞바다는/ 굽이굽이 갈기를 세워 달려든다// 신월리에서/ 만성리에서/ 애기섬을 돌아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소리 결에/ 늙지 않는 바람이/ 오동도 숲을 흔들어 깨운다/ 긴세월 가려진/ 눈부신 햇살에/ 이제 비늘을 벗는다// 살아서 죽은 자나 /죽어서 산 자나/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할 때// 통곡조차 죄가 되던 세상/ 아직도 어두운 흙 속에/ 두 손 들어 떠도는 혼령이여/ 이제는 자유하라'. ('진혼' 중에서)

조계수 시인의 원곡을 약간 변형한 노래 '진혼'은 여수·순천의 고통뿐 아니라 1980년 이후 '광주'의 깊은 아픔과도 이어지는, 희생자와 남은 자들 모두를 위로하는 참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오페라나 레퀴엠의 장엄한 합창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반주와 도입부를 거쳐 '통곡조차 죄가 되던 세상', '흙 속에 떠도는 혼령'에서 크고 높게 올라가면서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충분히 장중한 진혼의 의미가 담긴 선율과 리듬입니다.

트롯풍의 서글픈 멜로디를 간직한 '산동애가'는 바리톤 1명 소프라노 2명이 한 무대에서 불러 트롯의 통속성을 벗었습니다. 옆자리 초로의 남성도 훌쩍였습니다. 스토리가 담긴 음악은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구례 산동은 지리산 산간마을로 지금은 산수유 축제로 잘 알려진 곳이지만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구례읍과 지리산골짜기의 경계에 있어 14연대 반군과 국군 간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던 곳. 이곳에서 부역 혐의로 몰살당한 가족과 함께 열아홉 어여쁜 나이에 죽임을 당한 산동 아가씨의 이야기가 노래 속에 전해옵니다.

'잘 있거라 산동아 너를 두고 내가 간다/ 열아홉 꽃봉오리 피워보지 못한 채로/ 가마귀 우는 골에 병든 다리 절며 절며/ 달비 머리 풀어얹고 원한의 넋이 되어/ 노고단 골짝에서 이름없이 쓰러졌네'.(산동애가 중)

순천 음악회가 열린 순천문화예술회관은 순천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1948년 여순사건 때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그곳 언덕 대숲은 언제나 서늘했었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추모음악회가 참 적당한 곳에서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천역 자리, 장대다리(동천), 낙안면 신전마을까지 많이 알려진 곳들 외에도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구례, 곡성에 이르는 곳곳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의 생채기가 있습니다.

함께 나눌 평화·희망 담아

다행히 지난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희생자와 유족들을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19일 74주기를 맞아 정부가 광양에서 합동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통곡조차 죄가 되던 시절을 숨죽여 보내왔던 사람들의 74년 눈물을 어떻게 할까요.

이날 연주의 마지막 곡은 박영란 작곡 '님을 위한 행진곡 주제에 의한 피아노 협주곡-5월 광주'였습니다. 잘 알려진 '님을 위한 행진곡' 멜로디를 서정적이고 고운 피아노 연주로 들려주면서도 급박했던 투쟁과 처절한 희생을 다양한 오케스트라 소리로 표현하고, 그 아픔과 슬픔과 죽음을 넘어 이제 40년을 넘기면서 함께 나눠야 할 평화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산동애가'도, '진혼'도,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도 모두 노랫말로 역사를 증언하고 억울한 희생자를 위로합니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폭력과 죽음,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술이 모든 아픈 삶을 살아야 했던, 여전히 그 속을 살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설

남구 백운광장 랜드마크 조성 주목한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빛의 쇼'가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남구는 올 연말까지 남구청사 정문에 미디어 월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는 푸른길 공원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와 함께 백운광장 일대를 광주 대표 랜드마크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백운고가 철거 이후 백운광장 주변이 급속히 변모하는 가운데 첨단미디어 시설이 들어서고 내년 공중보행로가 세워지면 지역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설치되는 백운광장 미디어월은 청사 4·5층 전면부에 'ㄴ'자 곡선 형태의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로, 백운 호랑이가 화면에 등장해 현재 시각을 알려주는 시범 영상, 내년 2월 초부터 착시현상을 일으켜 입체감을 구현하는 아나모픽 일루전 영상을 선보인다. 특히 미디어월은 남구민이 평소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보 받아 송출하는 한편, 가족 간 스토리를 담은 영상편지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원하는 영상 송출 시기에 맞춰 해당 콘텐츠를 오픈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또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남구청 정문과 푸른길 공원 양방향 산책로 등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를 추진하고 있다. 총 206.4m 길이의 공중보행로는 백운광장을 기점으로 진월동과 남광주역 푸른길 공원 방향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지역 안팎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게 확실하다. 스카이워킹이 가능한 보행로로 건설돼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광역시임에도 광주지역에는 랜드마크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남구가 이번에 세우는 미디어월과 공중보행로 등은 미래 문화예술과 도시 발전의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설은 급속화하고 있는 고령화 및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열된 공동체 회복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가족 공동체뿐 아니라 도시 공동체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당국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란다.

화물연대 파업, 대화로 파국 막아야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지역 건설사와 산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섰다. 30일 진행된 두 번째 협상도 40분 만에 결렬되면서 '강 대 강' 대치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기업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하루 총 5,000㎥를 생산했던 광주 레미콘 생산량은 원재료인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이번주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원료를 공급하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이 멈춰서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도 발생하고 있다. 북구 유동과 첨단지구, 동구 지원동 등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중단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소형 트럭을 이용해 소량의 제품 출하를 진행 중이지만 장기화 될 경우 타격을 피하기는 어렵다. 기아오토랜드 광주는 완성차 개별 탁송과 추가 적치공간 확보에 분주하다. 석유화학업계도 출하 차질을 빚고 있다. 석유공급이 끊긴 주유소가 속출하면서 '기름 대란'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지역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겨울철 콘크리트가 굳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타설 공정이 미뤄지면 공기에 쫓길 수 밖에 없게 돼 부실공사의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차 협상에서 기존 입장만 반복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화물연대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협상 불가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화를 진전할 수 없다고 맞선다.

상황이 지금처럼 극한으로만 치닫는다면 국가 경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질 뿐이다.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화물연대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 한다. 극단적인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의지가 절실하다.

에세이

스니커즈

박덕은
문학박사·화가·전 전남대 교수

백화점에서 철 지난 계절 떨이하듯 신발을 싸게 팔고 있다. 때 마침 과속으로 치닫는 걸음을 지탱해 온 구두는 낡아 있다. 신발끈을 묶지 않고 조였다 푸는 방식의 신발이 눈에 띈다. 유행을 팔기 위해 하고픈 말이 많아 보이는 신발이 반짝반짝 빛난다. 신어 보니 엄청 편하다.

"이 소가죽 스니커즈는 양복에도 잘 어울려요."

직원이 말하는 생소한 단어 '스니커즈'가 귓바퀴에서 뒤집혀 떨떠름히 걸려 있다.

"밑창이 고무로 된 운동화를 스니커즈라 해요. 양복과 청바지 둘 다 어울려서 인기가 좋아요."

난생 처음으로 양복에 맞춰 신기 위해 스니커즈를 산다.

그러고 보니 사람도 점잖은 정장 구두 같은 사람이 있고 경쾌한 스니커즈 같은 사람이 있다. 구두를 신으면 신사의 품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실밥이 너덜거리는 우스갯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뒤축이 잘근잘근 접히듯 실없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고향의 한 선배는 점잖은 정장 구두를 닮았다. 선배는 늘 남자답게 리더로서 행동했다. 함부로 구두 코를 치켜들 듯 언성 높이며 말다툼하지도 않았다. 반짝반짝 광을 낸 구두처럼 무게감으로 상대방을 압도했다. 나는 그런 근엄한 선배가 멋져 보였다.

하지만 직장에서 은퇴한 후 선배는 힘들어했다. 남자는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시대의 사고방식 때문에 아내와 충돌이 잦았다. 지시어와 명령어 같은 구두를 벗어야 하는데 여전히 신고 있었다.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진 뒷굽처럼 자신의 틀만 고집했다. 사사건건 부딪치며 노년의 뒷굽이 닳아져 갔다. 구두 속에 갇힌 구겨진 뒤축같이 자꾸만 삐거덕거렸다.

가죽 스니커즈는 구두에 비해서는 투박하지만 운동화의 효용성을 지니고 있어, 양복과 청바지에 모두 다 신을 수 있다. 그 무엇과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유연성이 있다. 스니커즈는 예고도 없이 어긋난 길들이 몰아쳐도 캄캄하게 아픔을 갉아먹지는 않는다. 불길한 내일의 급류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는다. 구두는 양복을 입지 않을 때는 신발장 구석에 놓여 있지만, 스니커즈는 다르다. 양복에서 곧장 청바지로 바꿔 입고 막일을 해도 스니커즈는 괜찮다. 함부로 할퀴고 찌르는 삶의 무표정을 견딜 만큼 스니커즈는 맷집이 있다. 불안이 팽창하는 발자국의 흉터 속에서도 끝끝내 험한 일을 극복한다.

선배는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아침밥만 먹으면 할 일이 없어도 밖으로 나갔다. 신경이 예민해진 대낮의 비위를 맞추며 사라진 지난날의 발자국을 안주 삼아 오후를 마시곤 했다. 발자국을 게워낸 오후가 바닥나서야 기울기가 삐딱한 골목을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스니커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스니커즈라면 방향으로 뒤엉킨 길들이 꼬여 덜거덕거려도 경쾌하게 걸을 것 같다. 직선의 길이 방치되어 휘어짐 많은 곡선으로 읽혀지더라도 심하게 휘청거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며 헛된 꿈에 부푼 점령군 같은 구두를 뒤로하고 스니커즈를 신는다. 생의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게 신발끈 바짝 조인 뒤 백화점을 나선다. 저벅저벅, 거리를 목청껏 낭독하는 소리가 경쾌하다.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기고

이달승
여수소방서장

기온이 점차 낮아지고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를 분석해 본 바, 2018년 화재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겨울철이라고 해서 화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난방용품 등 화기취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음으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방대책 중 하나는 아무래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아닐까 싶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경 여수시 화양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 근처 주방천장에 설치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화재사실을 알게 된 거주자가 119로 신고해 큰 화재를 막은 사례가 있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119라고 생각한다.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화재 및 안전을 위해 시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 여수소방서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소방인 모두는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국민이 위급하고 불편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라도 제일 먼저 달려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

독지광장

수능 해방감 '청소년 일탈' 우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면서 시험을 마치고 해방감을 맞은 수험생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우려된다. 수능을 마친 일부 학생들이 학업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음주·흡연 등 해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SNS상에서 술·담배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분증 위조 및 판매도 이뤄지고 있어 수험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매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은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주점들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주류 판매 업주가 수험생을 성인으로 착각하고 매장에 출입시키게 될 경우 영업에 당장 제재가 가해진다.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할 경우 해당 가게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람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능이 끝나고 해방감을 맞은 수험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도 안전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